

「제21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선정 결과

올해로 21회를 맞은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수상논문이 선정되었다.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은 국토 관련 연구의 질을 제고하고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자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 해 동안 국토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최우수 논문과 우수 논문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에 걸친 심사와 논의를 거치고 있다. 올해에도 선정위원회에서는 국토정책의 활용성, 연구 내용의 창의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 논문 1편, 우수 논문 4편을 선정하였다.

구분	논문 제목	연구자	소속	시상 내역
최우수	팬데믹 전후 평양 도시 썬 비교: 2018~2021년 로동신문 보도사진을 중심으로	안진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남북한인프라특별위원회 연구원	상금 200만 원
우수상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한 지역유형화 및 특성 분석: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중심으로	이민주 김의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서울대 농경제사화학부 교수	상금 100만 원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컨드 홈 조성 방안: 영국의 정책과 사례를 중심으로	김상희 이차희	어번 리제너레이션 플러스 대표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부연구위원	
	공간압축적 도시정비를 위한 유도구역 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경북 의성군을 사례로	권용석 류형철 정성훈	대구경북연구원 도청센터 연구위원 대구경북연구원 도청센터 연구위원 대구경북연구원 도청센터 연구위원	
	1920년대 경성 동부지역 토지 가격 결정 요인 연구	유슬기 김경민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객원연구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제21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심사평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안진희의 “팬데믹 전후 평양 도시 썬 비교: 2018~2021년 로동신문 보도사진을 중심으로”는 로동신문 보도사진을 통해 북한의 수도 평양의 팬데믹 썬(scene)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보도 매체가 극화된 새로운 문화적 보편성이라는 가설을 검토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코로나19발생 시기 전후를 기준으로 두 집단의 로동신문 보도사진을 비교하고 이를 지도에 지리좌표계정보를 기반으로 시각화하였다. 그 결과 평양의 팬데믹 썬에서 소독과 방역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며, 정치적 선전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문화시설에서 산업시설로 크게 바뀐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팬데믹 시대 평양이 ‘주민생활에 인접한 대규모경관을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도시건설의 지향점이 변화되고, 실질적 생산의 가시성은 약화된 도시라고 결론지었다. 도시의 특정장소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특성과 생활양식에 주목하는 도시썬 연구는 주민이 자신이 보는 동시에 보이기 원하는 연극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극장국가로 간주되는 북한의 도시연구방법론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유행과 그에 대한 국가적 대응책의 효과 측면에서, 북한의 팬데믹 상황에 대한 대처가 기존체제의 국가주의적 성격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비교적 예측가능한 결론을, 매우 새로운 연구방법을 통해 성공적으로 도출하였기에 북한도시연구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판단되어 최우수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이민주, 김의준의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한 지역유형화 및 특성 분석: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중심으로”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한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시도하여 전국 226개 도시의 지역여건과 발전 수준 및 격차를 강점과 약점 분야로 고찰하였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한 균형발전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 정도와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시도로서 지역들을 5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활용한 군집분석이 아닌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활용하여 지역 분류의 객관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뚜렷하며, 국토균형발전의 측정 지표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우수한 논문이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김상희, 이차희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세컨드 홈 조성 방안: 영국의 정책과 사례를 중심으로”는 국내에서도 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세컨드 홈의 개념을 이론 및 사례 고찰을 통해 탐구한 논문이다. 연구는 크게 세 개의 장으로 구분된다. 본론의 첫 장에서는 세컨드 홈의 개념과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에 기존 문헌을 고찰하였고, 이어서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세컨드 홈의 조성 수법을 분석한 뒤, 국내 세컨드 홈 조성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간 고소득층의 사치재 성격으로 이해되어 왔던 세컨드 홈의 개념을 유형을 구분해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있으며, 세컨드 홈이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한 사례를 근거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우수성이 인정되었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요가 급증한 바 있는 세컨드 홈의 확대 추세를 국가적인 균형발전 및 로컬리즘 기반의 지역활성화 전략과 연계할 수 있는 통찰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큰 논문이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권용석, 류형철, 정성훈의 “공간압축적 도시정비를 위한 유도구역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경북 의성군을 사례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 속에서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시정비 기준을 제시한 논문이다.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 앞서 인구감소와 맞물려 지역소멸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입지적 정화계획 기법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입지적정화계획구역 설정을 위한 일본 지자체의 면적($50km^2$)과 거점 시설(철도역)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맞지 않음을 전제하고, 우리나라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의 특성이 반영된 읍면 사무소나 시장, 의원 등의 실증적 거점 후보 시설군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제안하고자 하는 논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면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DBSCAN 기법을 적용하여 건물 밀도 기반의 기하학적인 후보 대상지를 도출하였고, 적합성 여부의 정량적 비교·평가를 위하여 공간정합성지표(Spatial Consistency Index: SCD)를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의 이론적이고 개념적 논의에서 진일보하여 소멸 위기 공간의 압축적 재편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줄 구체적 계획기준을 모색한 것으로 이 연구의 핵심 기여 중 하나이다. 즉,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를 대상으로 한정된 행정자원의 효과적 활용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설 서비스 접근성의 질을 높이고 일상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구를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압축도시를 구현하는데 고민해야 할 실질적인 논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적 위기 상황 앞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증적 차원의 정책적 방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수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유슬기, 김경민의 “1920년대 경성 동부지역 토지가격 결정요인 연구”는 100년 전 경성의 토지시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로서, 1927년 경성부 관내 지적목록자료와 1929년 지형명세도를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근대도시 경성지역의 토지가격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심과의 거리가 1920년대 경성에서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즉,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도시인 경성의 경우, 현대도시와 마찬가지로 도시중심지와의 접근성이 토지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처럼 과거 토지가격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공간 변화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흥미 있는 작업이다. 특히 장기간에 걸친 과거 토지가격 데이터를 보완하면서 지가 추이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의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일은 도시의 역사를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과거의 토지정보와 지도를 디지털화하여 GIS분석과 회귀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과거 토지정보자료에 대한 단순한 기초통계분석에 머물러 있던 역사학계의 연구와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 연구를 계기로 과거 토지가격 데이터의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국토 및 도시공간의 변화와 격차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기대가 된다. 이러한 점들을 높이 평가하여 우수논문상으로 선정하였다.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연구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올해에도 「국토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투고자, 심사위원, 편집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2023년 5월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선정위원회